

## VI. 經營 政策 課題

### 1. 유럽 經濟統合의 難航과 對유럽 進出 戰略 方向

- (難航의 原因) EU의 유럽 통화 동맹 (EMU)을 둘러싼 獨·佛·英 삼국의 입장 차이로 통합 진전이 지체되고 있음
- (通貨同盟 結成의 不振 理由) i) 마스트리트(Maastricht) 基準의 각국 경제 정책의 엄격한 적용으로 유례없는 失業率 야기, ii)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과 각국 중앙 은행들과의 경제 정책 노선을 둘러싼 현격한 견해 차이
- (向後 展望) i) 중단기내 완전한 단일 경제공동체인 「유럽 共和國」의 실현은 불가, ii) EU 역외 경제권에 대한 排他的 地域주의 성향 고조, iii)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 iv) EU 지역內 각국간 경쟁 격화
- (示唆點) i) 직접투자 조건의 유리, ii) 동구권의 생산 입지적 매력 증대와 시장 잠재력의 부각, iii) 유럽노조와 마찰 축소

통화 동맹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이해 충돌로 유럽 경제 통합에 암운

마스트리트 기준에 따른 긴축 강화로 각국 유례없는 실업 기록, 각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반발 야기

#### ○ 유럽 經濟統合 난항의 原因: 通貨同盟

- 유럽은 경제 통합 분야의 마지막 단계인 화폐 통합을 앞두고 각국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의견 격차로 통합 진전에 난관 봉착

#### ○ 通貨同盟 結成의 不振 理由

- 마스트리트(Maastricht) 基準의 각국 경제 정책에의 엄격한 적용
  - 통화 동맹 결성을 위한 Maastricht 조약 정책 지침 기준 중 재정 적자와 공공 부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됨. 전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내, 후자는 60% 이내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 수단이 제한되어 독일은 96년 9월 현재 10.1%의 실업률 기록, 프랑스는 12.6%, EU 전체는 11.4% 를 기록함. 실업 문제로 각국 정부가 화폐 통합에 대한 노력을 자국민들로부터 거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sup>1)</sup>

1) 지난 다섯달 사이에 EU 내 EU 통합 지지율이 57%에서 54%로 떨어졌으며, 단일 화폐 도

**독일 연방은행의 안정 고수 정책에 대한 여타국 중앙은행들의 반발**

-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와 각국 중앙 은행들과의 경제 정책 노선상의 현격한 이견으로 최근의 EU 통합은 혼미에 각국간의 불신속에 흔들리고 있음<sup>2)</sup>
- 독일 Bundesbank는 Maastricht 기준의 느슨한 충족으로 인해 인접국에서 독일로 인플레이션이 수입될 것을 우려, 이 기준의 엄격한 충족을 각국 중앙 은행들에 촉구
-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내 실업을 진정을 위해 어느 정도 성장 정책을 펴야 하기에 독일 측이 요구하는 '안정 협약 (Stabilitätspakt)'의 엄격한 준수를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주장
- Maastricht 기준 충족을 위해 주요국 중앙 은행이 재정 지표들의 분식 (Bilanz-Kosmetik)을 기도하는데 대해 Bundesbank 총재 티트마이어가 강력히 경고<sup>3)</sup>

**유럽 각국은 독일·불·영의 3각축 속에서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을 행할 것임**

○ 向後의 유럽內 力學關係 및 經濟環境 展望

- 중단기내에 완전한 단일 경제 공동체인 유럽 공화국의 실현은 불가
-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유럽 각국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3대 세력을 축으로 이합 집산 예상
-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며,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소위 '지중해 그룹'을 형성하여 맹주 역할을 하려할 것임<sup>4)</sup>
-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할 경우 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네델란드, 덴마크, 에이래와 함께 보수 세력을 만들고자 애쓸 것임. 하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상당 기간 EU내의 아웃 사이더로 떠돌 가능성이 많음<sup>5)</sup>

입 반대율이 51%에서 55%로 증가했고, 실업 문제도 무리한 통화 동맹 강행의 역작용이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20%에서 34%로 늘었음., Hehn, J., "Ein Mini-Computer gegen die wachsende Euro-Angst," in *Die Welt*지, 96년 11/8일 자.

2) Hehn, J., "Für Bonn und Paris bleibt Europa das Klassenziel," in *Die Welt*지 96년 12/9일 자; 저자 미상, "Paris möchte Initiative zur Beschäftigung," in *Handelsblatt*지 96년 12/7일 자; Pressemeldung, "Bundesbankpräsident Tietmeyer im SPIEGEL-Gespräch: Vorerst kein Bedarf für Zinsänderungen," in *Spiegel* 잡지 96년 50/96, p. 172.

3) 저자 미상, "Maastricht gefährdet Wachstum," in: *Die Welt*지 96년 11/14일 자.

4) 박 광희 (1990), 「보이는 EC 감춰진 유럽」, 서울: 현암사, p. 62.

고용 유지를 위  
한 자국의 한계  
기업 보호

고실업률과 치열  
한 지역 경제간  
경쟁은 기존 노  
조 조직의 개선  
을 인식하게 함

역외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  
유치 경쟁

-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의 각축시에 항상 케스팅 보트 지위를 누릴 것이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부와 동구 유럽 지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3축 중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리라 봄
- EU 역외 경제권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 성향 고조
- 실업자 수 증가로 고민하는 각국 정부는 자국의 한계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역외권 기업들의 수출 공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경향을 보일 것임
- 노동 조합의 영향력 약화<sup>6)</sup>
- 현재의 실업자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지역간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EU에서는 과거의 낡은 전통과 조직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개조해야 한다고 봄.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개조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노조 조직임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국들의 노조원 수가 근래에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또 하나의 근거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및 정보 추세로 대량의 노동 인구 투입 필요성이 줄어들음
- EU 지역내 각국간 경쟁 격화
- 역외권 수출 기업에 대해 보호주의 장벽을 쌓아 이들의 역내 직접 투자를 유도, 고용 흡수 및 M&A 를 통한 한계 기업의 정리를 겨냥하여 EU 각 지역들의 직접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 이로 인해 “경쟁적 효율 (X-efficiency)”이 생성되어 모든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효율성을 습득, 향유할 수 있음

○ 域內 進出 韓國企業에게 주는 示唆點

- 직접 투자 조건의 유리
- 각국은 역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투자 유인책

5) Rovon, J., "Deutschland und Frankreich sind der Motor der Integration," in *Handelsblatt* 지 96년 11/13일 자.

6) Kaltefleiter, W., "Zukunftsszenario von einer 'Wohlstandsinsel Europa'," in *Handelsblatt* 지 96년 11/13일 자.

EU 각국은 과감한 투자 유치책을 펼 것임

동구권의 생산입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과 교육받은 고급인력원의 확보

- (grant 공여, 조세 경감 등)을 경쟁적으로 펼칠 것임
- 영국의 경우 EU 내에서의 약화되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보임(95년 삼성 전자, 96년 LG 전자의 영국내 종합 전자 생산기지 투자 결정 시에 보여준 영국 정부의 유치 열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독일은 역외 직접 투자 기업들에 대해 높은 노동 비용의 핸디캡을 상쇄하고자 조세 세도의 획기적 개정과 정보 통신 infrastructure 확대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임
- 동구권의 생산입지 매력 증대와 시장 잠재성의 부각
  - 독일은 동구권에서의 맹주 역할을 자임하기에 이곳의 EU 경제권 진입을 지원하고, 정보 통신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확장에도 적극적임
  - 이 지역 진출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 시장에 접근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기지를 확보함을 뜻함
  - 동구권 국가에 직접투자 진출로 고급 인력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음
- 까찰이 줄어들 유럽국 노조들과의 관계
  - 반성적인 고실업율은 산업 구조 고도화 조정과 맞불려 점점 유럽 노조들의 영향력을 약화 시킴. 이는 한국과 같은 역외 기업들이 진출을 버릇기런 높은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김 재 만)